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01] 가는 길 (김소월): 44P
- [02] 우리가 물이 되어 (강은교): 44P
- [03] 절정 (이육사): 149P
- [04] 새 (김지하): 149P
- [05] 매미 (나희덕): 166P
- [06]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166P
- [07] 눈 오는 지도 (윤동주): 202P
- [08] 석문 (조지훈): 202P
- [09] 오랑캐꽃 (이용악): 230P
- [10] 산수유나무의 농사 (문태준): 230P
- [11] 사령 (김수영): 250P
- [12] 아마존 수족관 (최승호): 250P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44p]

그림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저룹니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김소월, 「가는 길」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44p]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별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萬里)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149p]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149p]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날으는 새여
뫼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밀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 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 가는
넋 속의 저 짧은
여위어 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뫼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 답새라: 없애고 싶어라.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완 166p]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날까지
 흙 속에 날개가, 입이 부서져
 푸른 등을 땅에 대고 눕는 날까지
 이 땅에 올라온 한 마리 매미가 우는 것은
 짧고 단단한 목숨 때문은 아니다.

한줄기 빛도 없는 흙 속에서
 나무뿌리에 입을 대고 목청을 기른 시인,
 벗겨진 허물들이 습작기의 원고로 쌓이고
 음지에서 올라온 그는
 남은 것을 빨다 지친 아기처럼
 마침내 나무등걸을 타고 오른다

그때 매미는 거칠은 나무껍질에서
 부드러움을 발견하고 만 것일까
 여섯 해의 긴 침묵을 견뎌 자에게만 목청을 주는 세상,
 신록의 이 거친 물결 위에 누워
 마지막 허물을 벗기 위하여
 그는 나무등걸을 오르게 된 것일까

매미는 목청으로 다른 매미들을 모으고
 그 울음소리에 암매미 떼 날아온 저녁
 사랑은 짧고,
 새로운 애벌레들의 행진,
 그리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눕는 날에는
 가장 부드러운 목청을 얻는 것이다

- 나희덕, 「매미」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166p]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덤한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202p]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 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 안을 돌아다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장이 하얗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歷史)처럼 훌훌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쫓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일 년 열두 달 하얗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 윤동주, 「눈 오는 지도(地圖)」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완 202p]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못 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石壁欄干) 열두 층계 위에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千年)이 지나도 눈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습한 속눈썹에 향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남긴 푸른 도포 자락으로 이 눈물을 씻으렵니까.

두 불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 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감을 어찌합니까.

몇만 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허공 중천(虛空中天)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千年) 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 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 조지훈, 「석문」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230p]

—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드리인 오랑캐의 뒷머리와의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구름이 모여 골짜 골짜를 구름이 흘러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다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울어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

- 이용악, 「오랑캐꽃」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230p]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들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들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250p]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黃昏)도 저 돌벽 아래 잡초(雜草)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行動)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郊外)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완 250p]

아마존 수족관 집의 열대어들이
 유리 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뚫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의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변기 같은 컷바퀴에 소음 부엉거리는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시(詩)를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
 -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